혜경스님의

경전읽기

우리는 모두 부처님 아들

모래로 탑세우고 '나무불' 외워도 불도성취

법화경 ⑤비유품 ❶사리푸트라에 대한 수기

'방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천차만별이지만 그 속에 있는 진리 즉 대생명은 근원적으로 평등(平等)하다는 것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시며 "마음의 평안만을 위하여 열반을 구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셨다. 이어서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적멸상(寂滅相)이므로 따로 적멸(涅槃)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과 "아이들이 놀이할 때 모래 모아 탑 세우거나 혹은 부처님의 상(像)을 모신 절(廟)에 들어가 한 손을 들고 '나무불(南無佛)' 하고 소리내어 불러도 그것을 연으로 하여 점차로 공덕 쌓아 고통 뽑아 주겠다는 큰마음(大悲心) 갖춘 후 모두 불도 성취했다"고 설하셨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사리푸트라(舍利弗)는 너무나 가슴이 벅차 올라 뛸 듯이 기뻐하며 스스로가 이해한 것을 부처님께 여쭙는다.

"저는 부처님께서 오래 전부터 '누구든지 수행을 쌓으면 부처님이 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왔고 또 많은 보살들이 장차 성불하리라는 예언(授記)을 받는 것을 보았지만, 저희들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에게는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수행에 수행을 거듭하더라도 결국은 부처님처럼 한량없는 지혜를 얻을 수 없는 몸이 아닌가 하고 매우 슬퍼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듣게 되어 모든 의혹(疑惑)과 원통해 하는 마음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니 마음과 몸이 느긋해져 무어라 형용할 수 없이 평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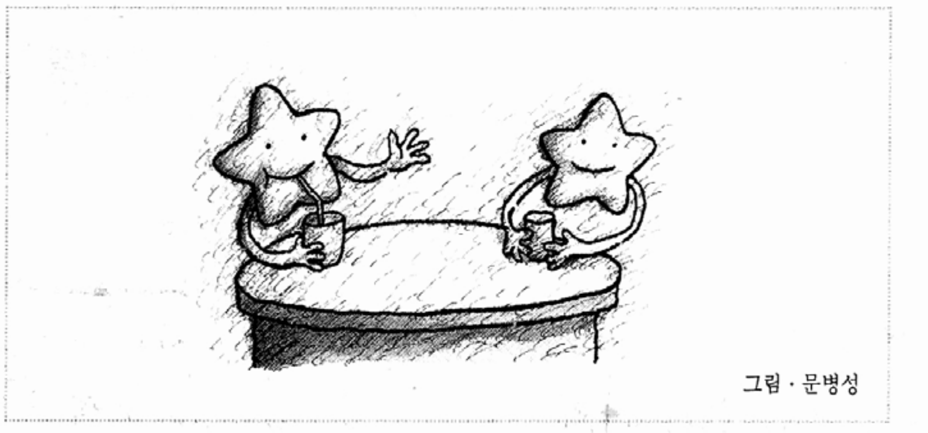
오늘 저는 비로소 참다운 부처님의 아들(佛子)이며 부처님의 입에서 태어났고 부처님의 교화에 의해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여 천신(天)과 사람(人)들에게 존경받는 몸이 되어 위없는 최고의 가르침 널리 설해서 많은 보살을 교화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자 부처님께서는 "나는 전생에서 그대에게 최고의 깨달음인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가르쳤는데, 이 세상에 와서는 그것을 말끔히 잊어버리고 내가 손쉽게 설한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이미 완전한 열반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해 버렸으니, 나는 그대에게 부처님의 아들로서 세운 본래의 서원(誓願)과 그 서원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갖가지의 수행을 다시 기억해 내도록 하기 위해 그대를 비롯한 모든 성문들에게 이 대승의 가르침인 묘법연화(妙法蓮華)·교보살법(敎菩薩法)·불소호념(佛所護念)을 설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처님께서는 "사리푸트라(舍利弗)여, 그대는 생각조차 미치지 못할 만큼의 아득한 미래 세에 이를 때까지 한량없는 수많은 부처님을 섬기며 그 부처님들이 설하는 바른 가르침(正法)을 굳게 지켜 보살로서 해야 할 수행을 완전히 닦은 후, 기필코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리니, 이름은 화광여래(華光如來)·응공(應供)·정변지(正遍知)·명행족(明行足)·선서(善逝)·세간해(世間解)·무상사(無上師)·조어장부(調御丈夫)·천인사(天人師)·불(佛)·세존(世尊)이라 하며 그 나라의 이름은 번뇌가 없는 청정한 리구(離垢)라 하리라" 하시며 수기(授記)한다.

이렇듯 사리푸트라는 자기가 부처님의 아들 즉 보살임을 알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수기한 것이므로,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神子)임을 알았듯이 우리들도 중생이 아닌 원생(願生) 즉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 부처님의 아들(佛子)임을 알아야 한다.

■무설정사 조실



에너지 주고 받는 천체

이시우 박사가 쓰는

불교와 우주 ❼

조우와 섭동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 사이에도 항상 인력이 작용하고 있다. 가까이 지나는 별들은 더 강한 인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원래 진행하던 경로와 속도까지 변하게 된다. 질량이 큰 별은 질량이 적은 별보다 끌어당기는 인력이 크기 때문에 질량이 적은 별의 진행 속도를 증가시키며 또한 진행 방향도 휘어지게 만든다. 그 결과 가벼운 별은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되고, 반대로 무거운 별은 운동 에너지를 잃게된다. 이것이 곧 천체들 사이에 일어나는 에너지의 주고받음이다.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 사이에도 비록 양은 적지만 이러한 에너지의 주고받음이 일어난다. 결국 우주 내에서 만물은 서로간에 일어나는 에너지의 주고받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고 생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주고받음이란 무엇인가? 천체의 경우에 첫째는 역학적 섭동이고, 둘째는 빛의 주고받음이다. 후자는 주로 천체의 물리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반면에 전자는 천체의 역학적 운동상태를 변화시킨다. 여기서는 주로 역학적 섭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천체에 미치는 섭동이란 그 천체에 미치는 주된 힘 이외에 나머지 적은 힘을 뜻한다. 예를 들면 지구에 미치는 주된 힘은 태양의 인력이다. 이 힘에 끌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그러나 지구 주변에는 금성, 화성, 목성 등 여러 행성들이 있으며 이들도 지구에 인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이 인력은 태양의 인력에 비해 무시될 정도로 적으며, 이를 지구에 미치는 섭동이라 한다.

> 큰별 중심 작은별 외곽 분포
> 불법은 만유의 조우·섭동 원리
> 인간도 교류하며 영향 받아

별들의 집단 내에서 각 별들은 중심 주위를 돌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을 일으키는 주된 힘은 집단 전체의 중력이다. 그러나 별들은 가까이 지나는 다른 별들로부터 계속 인력이라는 섭동을 받는다. 이때 두 천체가 서로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을 충돌이라 하고, 진행 경로를 바꾸면서 서로 비켜가는 경우를 조우라 한다. 조우가 일어날 때는 섭동을 통해 서로간에 에너지의 주고받음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진행 경로와 속도가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수백만 개의 별들로 이뤄진 성단에서 각 별들은 다른 별들과 끊임없는 조우를 통해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각 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운동 방향과 속도)는 모두 상실되어 버린다. 이러한 상태에 이르면 가벼운 별들은 운동 에너지를 얻어 성단의 외곽에 주로 분포하고, 무거운 별들은 속력을 잃어 성단 중심부로 모이게 된다.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운동 속도가 클수록 증가하는데, 구속을 벗어나려는 분산의 척도를 나타낸다. 한편 물체가 지니는 포텐샬 에너지는 그 물체가 다른 물체에 미치는 인력에 관련되는 것으로 구속의 척도를 나타낸다. 어떤 상태에서 한 물체가 가지는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샬 에너지(음의 값으로 표시)의 합이다. 한 성단에서 별들의 총 에너지가 양의 값을 가진다면 별들이 성단을 이탈하려는 분산효과가 강해져 성단이 파괴된다. 반대로 총 에너지가 음의 값을 가지면 구속효과가 강해져서 별들은 성단에 강하게 구속된다.

성단 내에서 별들은 연속적인 조우, 섭동을 통해 서로간에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성단의 총 에너지가 음인 경우에 성단 내의 무거운 별들은 성단의 중심부로 모여 구성원들이 성단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강한 구속력을 미치며, 가벼운 별들은 성단의 외곽에서 활발히 운동하면서 성단이 안쪽으로 수축하는 것을 막아 성단이 일정한 형태를 유지토록 한다. 이때 성단의 각 구성원이 가지는 총 에너지가 서로 같아지는 에너지 등분배가 이루어지면서 성단은 역학적으로 안정된 평형상태에 이르게 된다.

인간 사회에서도 별들의 세계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자연 사이에 끊임없이 조우, 섭동이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가정의 구성원들은 가풍에 구속을 받지만 밖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 다양한 정신적, 물질적 섭동을 받는다. 이러한 섭동은 누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맹자의 어머니가 좋은 교육환경을 찾아 이사를 세 번이나 했다는 '맹모삼천지교'는 바로 좋은 조우, 섭동을 얻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섭동을 등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섭동이 점차 누적되면 언젠가는 돌이킬 수 없는 혼돈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불법에서 말하는 연기사상은 바로 이러한 상호간의 주고받음에서 일어나는 긴밀한 유기적 관계를 나타낸다. 옷자락을 스쳐도 인연이라는 것은, 조우와 섭동의 중요성을 뜻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만나 영향을 주고받으며 모두가 평등해지고, 또 특별해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진다는 보편성을 깨닫게된다. 그래서 불법은 아주 적은 주고받음에서 시작되는 오묘한 자연의 이치인 동시에 만유의 조우, 섭동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는 섭리인 것이다.

■전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

"종교 깨달음 체험은 두뇌 화학작용서 비롯"

니르바나 즉 무아의 경지에 이르거나 신의 목소리를 듣는 등의 인간의 영적(靈的) 체험까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최근 미국에서는 종교적 체험을 두뇌활동의 한 현상으로 해석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이들 연구진은 인간의 두뇌가 뇌신경계의 화학적 변화나 특별한 정신적 활동에 의해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고 주장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다.

지구촌 불교 / 美·加 뇌 활동 분석

펜실베이니아 대학 앤드루 뉴버그(Andrew Newberg) 교수는 티베트 불교 명상가들에게 추적용 방사성 물질을 주입해 두뇌활동을 촬영한 결과 깊은 명상에 빠졌을 때 대뇌의 한 부분인 두정엽(頭頂葉)의 활동이 줄어든다는 것을 확인했다. 두정엽은 자아 인식과 신체적 방향감각을 담당하는 부위다.

뉴버그 교수는 "두정엽의 활동이 정지되면 사람들은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니르바나의 경지에 빠지게 된다"며 "인간의 두뇌에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 종교는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사람들은 신을 믿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자신의 주장을 〈왜 신은 사라지지 않는가(Why God Won't Go Away)〉라는 책으로 펴냈다.

캐나다 서드베리 로렌시아 대학의 마이클 퍼싱어(Michael Persinger) 교수는 사람들의 두뇌에 약한 전자기를 흘려보내는 실험에서 5명 가운데 4명이 종교적인 체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중 일부는 흐느꼈고, 일부는 자신이 신과 접촉하거나 악마와 대화를 나눴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며 "이 실험으로 종교적 체험은 두뇌와 관련 있는 것이며 두뇌 이외의 것과는 연관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두정엽 활동 멈추면 해탈경지 도달"

"피아노가 음악 만든다는 식 억지주장"

이들 외에도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는 종교적 체험과 간질 발작의 관계를, 듀크 대학에서는 환각제와 영적 체험의 관계를 조사하는 등 두뇌와 종교적 현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물론 종교적 체험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이 같은 시도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종교적 체험이 두뇌활동과 관련돼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체험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두뇌의 바깥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 아이다호 대학 재임스 오스틴(James Austine) 교수는 "선이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 체험이 바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뇌의 화학적 작용만으로 몰아(沒我)의 경계를 논하는 것은, 자칫 종교의 깨달음을 폄하시킬 수 있다"며 "이를 연구하는 신경학자들이 종교적 수행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과 두뇌(Zen and the Brain)〉의 저자이기도 한 오스틴 교수는 일본에서 수년간 선을 배웠고, 현재 명상가로 활동하고 있다.

〈신과 두뇌(The God and the Brain)〉의 저자 메튜 알퍼(Mattew Alper) 씨는 "종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인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며 "서로를 죽여야 하는 전쟁터로 향하는 병사들은 슬픔과 두려움을 겪기 마련인데, 이는 종교적 윤리로 설명할 수 있지, 뇌의 화학적 작용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캔자스 대학 대니얼 뱃슨(Daniel Batson) 교수는 "두뇌가 종교를 만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아노가 음악을 만든다고 강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한 장, 한 눈, 한 방으로 말할 수 있는 신시서(神示書)! 이 책 한 권으로 활인천역자의 고민과 애로가 확 풀렸습니다.

六壬來情秘法 革新版 출시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오행을 전혀 모르는 분을 위해
크게 필요하나 오행공부를 시작하기 힘든 분을 위해
오행에 아주 능통한 분을 위해
또, 간판을 자신있게 걸고자 하는 분을 위해
큰 맘 먹고 명예와 양심을 걸고 후회없이 다시 썼습니다. -효 사-

매일 한 장씩을 비인더 처리된 본 책에서 빼내 책상위에 올려 놓기만하면, 하루에 몇 십명이 찾아오든, 전화해오든, 가서 만나든, 그 사람들의 속 사정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해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에 들어서자 마자 전화 받자 마자 만나자 마자 먼저 쏟 말(初辭)을 다시 갈고 닦아 송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귀신**과 **빌미부정**과 **산소탈**이 분명히 적시되어 있어 그 것을 보고 말씀만 하시면 적중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압법을 부록에서 본 후 수법을 행하면 틀림없이 이를 해제시킬 수 있게 됩니다. 활인 천역자의 평생 반려가 될 수 있는 귀한 기이서(奇異書)가 될 것입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을 못따르고, 육임 10년을 해도 이 책의 진수를 밝혀 내기 힘듭니다.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어도 되는 책입니다.

가격 : 930,000원(구십삼만원) 입금처 : 한빛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복문

각종 신용카드로 장기분할 구입이 가능합니다. ●본 책은 월장별 12권으로 분권, 60갑자일을 매일별로 바인더 처리 ●부록·비디오 포함됩니다.

매일 한 장 씩만 빼서 그 시간만 보고 말씀만 하십시오! 공부가 필요없습니다.

전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시보 공망 표시	정단 正斷 시간	국수 局數	일일 順逆과 修法 可否 (+)(-)	점시가 갖는 천장 天將	점시에 의한 래정(來情)	과체로 본 래인(來人)의 전체적 정황	초전 동정 動靜	초사 (점자에게 던질 첫 말)	길흉속지 모망사 可·否 利害得失 여부	선인 ○ 보통인 △ 악인 ×	점자가 저지른 일 남으로부터 당한일	옛날 일 근래사 반복사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일의 시작과 그 결과 판단: 시작	중간	결과	귀신침범 여부 어떤 귀신인가	산소탈 음덕 묘지상태 여부(누구 산소인가)	빌미 부정여부 (띠 별)	家相 吉凶 이사 可否	이사 吉方 및 택일	소송 승패: 국가/개인	수상/수하	원가/피고	응기 일이 되는 일, 월	피해를 가해올 남여 방위	사과삼전 요해(了解)
奇宮冲 七殺	+ 申 ⑨亥	뒷면 제 10 국	+	구진 / 흰	매사가 불성하고 만물은 상한다 병재·관재·첩범사로 원수가 된다. 이별사가 있다 *집에 죽은 사람이 있네?	중심과(重審課): 직신·직덕은 해야 신흥 후길하는 사람이다 당면 일에 순응하라	申 관살	변화가 심하군요? 관재송사가 불겠어! 주거에 고심이 있으니, 가택이나 생업을 변동할 수 밖에 없는데 뜻대로 안되겠어! 귀신의 장난으로 시작은 있어도 끝은 안보이네! ㊉도로 귀야! ㊀가택신이 노했군!	卯 이득 가능	△	아 발동사 후회·원행 동요 심정 외사가 내입됨	신 사	올일	申 ×	亥 ○	寅 ○	낮 도로 시 鬼 / 밤 가택신 시 鬼	男 외조부 탈 / 女 낙태 탈	낮 辰·戌·丑·未·巳·亥 시 띠 / 밤 丑·未·卯·酉 시 띠	吉 안정	辰 方 육합日	○	○	○	未·申 日 月	낮 亥 方 남자 시 / 밤 亥 方 남자 시	逃亡

위 내용은 갑자(甲子)일 신(申)시에 찾아 왔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할 말들입니다. 아래 내용은 갑오(甲午)일 신(申)시에 두 번째로 왔거나 전화 오거나 가서 만난 두 번째 사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보 공망 표시	정단 正斷 시간	국수 局數	일일 順逆과 修法 可否 (+)(-)	점시가 갖는 천장 天將	점시에 의한 래정(來情)	과체로 본 래인(來人)의 전체적 정황	초전 동정 動靜	초사 (점자에게 던질 첫 말)	길흉속지 모망사 可·否 利害得失 여부	선인 ○ 보통인 △ 악인 ×	점자가 저지른 일 남으로부터 당한일	옛날 일 근래사 반복사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시작	중간	결과	귀신침범 여부	산소탈 음덕	빌미 부정여부	家相 吉凶	이사 吉方 및 택일	국가/개인	수상/수하	원가/피고	응기	피해를 가해올 남여 방위	사과삼전 요해(了解)
●	- 亥 午⑫	뒷면 제 1 국	+	태음 / 空亡	매사가 불성하거나, 실재 실탈건이다. 합·후 동궁은 임신이고, 점시에 청 동궁은 결혼사가 있다. 상인의 병재가 있다.	복음과(伏吟課): 상하좌우가 막혀서 고민하는 사람이다. 심신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자기 과신으로 재난이 있다.	寅 비견	운세가 기복이 있게 생겼네? 앞장서면 안돼! 쟁·형·송사를 주의해야겠어! ㊉여귀가 붙었네? ㊀전·흉사귀가 발동했어!	子 이득 가능	△	아 발동사	신 사	일어난 일	寅 ○	巳 ×	申 ×	낮 여귀 시 鬼 / 밤 전·흉사 시 鬼	男 탈 / 女 탈	낮 辰·戌·丑·未·寅·申 시 띠 / 밤 辰·戌·丑·未·子·午 시 띠	吉 안정	寅·未·亥·午 해 육합日	○	○	○	辰·巳 日 月	낮 寅 方 남자 시 / 밤 寅 方 남자 시	入廟

아래 내용은 갑오(甲午)일 유(酉)시에 찾아왔거나 전화오거나 가서 만난 사람에 대해 할 말들입니다.

시보 공망 표시	정단 正斷 시간	국수 局數	일일 順逆과 修法 可否 (+)(-)	점시가 갖는 천장 天將	점시에 의한 래정(來情)	과체로 본 래인(來人)의 전체적 정황	초전 동정 動靜	초사 (점자에게 던질 첫 말)	길흉속지 모망사 可·否 利害得失 여부	선인 ○ 보통인 △ 악인 ×	점자가 저지른 일 남으로부터 당한일	옛날 일 근래사 반복사	이미 일어난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시작	중간	결과	귀신침범 여부	산소탈 음덕	빌미 부정여부	家相 吉凶	이사 吉方 및 택일	국가/개인	수상/수하	원가/피고	응기	피해를 가해올 남여 방위	사과삼전 요해(了解)
함지 · 破	- 酉 辰⑩	뒷면 제 11 국	낮 - / 밤 +	낮 사 泄 / 밤 유 剋	파재, 또는 실주건이다. 남녀 불문하고, 색정시에 관련된다	중심과(重審課): 직신·직덕은 해야 신흥 후길하는 사람이다 당면 일에 순응하라	辰 재성	부부 다 같이 삼각관계에 빠져 있네? 男:남의 부인을 유혹해서 끼고 사네? 女:남의 남자를 후렸네! ㊉여귀의 부정을 탔어! ㊀전·흉사 귀신이 붙었어!	寅 이득 노력	×	아 발동사	구 사	일어난 일	辰 ○	午 ×	申 ×	낮 여귀 시 鬼 / 밤 전·흉사 시 鬼	男 탈 / 女 子·낙태 탈	낮 寅·申·巳·亥·辰·戌 시 띠 / 밤 寅·申·子·午 시 띠	吉 안정	子·巳 해 육합日	○	○	○	巳 日 月	낮 方 시 / 밤 方 시	防因媚而訟

위와같이 하루 각 시간별 래정사항이 한 장에 담겨 있어 그 날치 한 장만 본 책에서 빼 사용하면 됩니다.

▶상담(相談)내용에 대해 즉시 답변(答辯)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채출(採出)시켜 놓았습니다.

■전12권 ■크기:540×385×30 ■지질:스노우지 무광 100g ■표지:우단금박 ■제본:타공, 바인더

희망사 · 승진사 · 구재사 · 시험사 · 구직사 · 결혼사 · 임신사 · 가정사 · 이주사 · 소송사 · 질병사 · 매매사 · 여행사 · 도난사 · 심인사 · 상면사 · 채용사 · 투자사 · 승부사 · 가격사 · 농경사 · 묘지사 · 기후사